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10 윤강 2기 석굴

현실에서 이상세계의 꿈 새기다

윤강석굴의 담요오굴 중 마지막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16굴은 국가주도의 성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16굴에는 손바닥을 위와 아래로 향하는 시무의 여원인(施無畏 願顯印)을 한 석가모니불이 자리하고 있다. 이 불상이 입고 있는 배에서 길게 내려뜨린 신(紳; 옷을 묶는 띠) 자락은 중국의 천지들이 입고 있는 옷의 모양이다. 이민족 국가인 북위가 중국화를 위해 복제 개혁을 단행한 것은 486년의 일이다. 최소 20년 앞서 황제를 묘사한 불상에서 중국 복식이 나타나는 점이 특이하다. 불상이 당시 사회의 흐름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가 특징이다. 옷 소맷자락이 넓고 띠를 두른(포의박대식; 褒衣博帶式) 특징을 보여주는 등 단순히 크고 많은 장식으로 위압적인 모습을 표현한데서 변화하여 우아한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고졸(古拙한 미소를 띠고 있는 생기 있는 불상의 얼굴은 이 세상의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옷자락이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하겠지만 유목기 마민족인 북위인들이 그들의 옷을 벗고 중국식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커다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불상의 얼굴 속에서도 우아한 중국적 문화의 특성을 수용해 그들의 정신세계가 중국적 흐름 속



16굴 주존불 입상, 윤강석굴의 불상 중 최초로 중국 복식을 갖춘 불상이다. 북위 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0년 앞서 조성된 이 불상은 중국화에 대한 북위인들의 소망이 반영됐다.

북위는 이후 한화정책(漢化政策)이라고 불리는 중국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효문제 즉위 후 471년 경부터 지속적인 한화정책을 실시하는데 태화 10년(486년)에 실시한 황제의 곤면복(袞冕服; 중국 황제의 복장) 착용을 시작으로 494년에는 일반인들에게 호복(胡服; 이민족의 복장) 착용을 금지했다. 담요오굴 개착 이후 윤강석굴은 465~494년경 두 번째 개착 시기를 맞는다. 이 시기의 윤강석굴은 굴 두 개를 나란히 파고 들어간 쌍굴(雙窟) 형식이 대부분이다. 쌍굴 형식은 황제와 태후를 위해 조성한 것이다. 황제는 당시의 황제인 효문제이며, 태후는 그의 할머니였던 풍태후(馮太后)다. 당시 풍태후의 권력이 상당히 두 명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했다. 각각 쌍을 이룬 제7·8굴, 제9·10굴은 특히 안에 위치한 조형에서 담요오굴에서 보여준 박력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 네 굴의 불상은 가늘고 긴 몸매

로 녹아들어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쌍굴 형식에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좌상이나 유마·문수보살을 새긴 감살이 있다. 이러한 조각은 <변화경> '견보탑품' 과 <유마경> '문집품'의 내용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화려한 채색 사이사이로 비천이 날아다니고, 구원의 상징이자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 의자에 앉아서 중생을 맞이하고,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는 비스듬히 마주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문수보살과 유마장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석굴을 보고 있노라면 세계 속에서 이상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북위인들의 바람을 읽을 수 있다. 석굴 안에 경전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불국토의 모습을 살피고 현실세계에서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 그들의 꿈이 서역에서 넘어온 석굴이란 문화 속에 재구성된 것이다. 문무왕(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55 직지사서에서 만난 가을



1년에 한두 번은 울어야 한다. 숲에 가을이 있듯이. 그날 만난 가을 풍경이 그렇게 말했다. 작년 가을 김전 직지사. 해마다 오고 가는 가을이지만 그토록 선명하고 짙은 풍경은 오랜만이였다. 단풍은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고, 도랑을 찾은 이들은 모두 낙엽 위를 걸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산새소리가 계절을 더했다. 아

스팔트길에서 걸어온 발자국들은 낙엽 위에서 무너졌고, 모래시계는 쉬지 않고 흘러내렸다. 얼마나 더 많은 가을이 오고 가야 낙엽 위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가을을 보내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울 수 있을까. 저녁 범종이 울고, 낙엽 하나가 행자 고무신에 묻어갔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7도 북방장상여등역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북방세계의 한이 없는 부처님들이 증명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중생들이 믿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이 도상도 제 16도나 제 15도, 제 14도와 비슷한 도상이며, 북방의 제불인 염견불, 보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이 아미타불과 아미타경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서방과 마찬가지로 약간 좌향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도상의 구름문양은 각각의 부처님을 좌대와 같이 감싸고 있는 단독의 구름문양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화면의 우측에 있는 부처님의 도상은 좌측면에 잘라진 상태로 표현되고 있어, 책의 삽화의 형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한계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도상은 10번째 목판 원판의 전반부 1/4에서 11번째의 목판 원판 전반부 1/3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리불야, 북방세계에 있는 염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등 이와 같은 항하수의 제불이 각각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두루 덮은 허-부처님 상호의 특징 중 하나로 길고 넓은 허이며,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시는 표현이)대를 내시고,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어 성

실한 말씀을 이르셨느니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 같이 찬탄하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 하시느니라.' (舍利弗 西方世界 有焰肩佛最勝音佛難沮佛日生佛網明佛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徧復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眾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 이 본문을 간추려보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이의를 찬탄하고 북방에 있는 염견불을 비롯한 한이 없는 여러 부처님들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믿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중생들이

믿을 것을 북방세계의 무수한 부처님들까지 내세우면서 간곡하게 설법하고 계시는 내용의 핵심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기를 염원하시는 것이다. 염불에는 입으로 끝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공덕을 찬탄하는 청명염불과 부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생각해 그 형상에 자기의 마음을 전념하도록 하는 관상염불, 자기 자신과 법신을 관찰해 마음을 일념 되게 하는 실상염불이 있는데,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염불이 바로 청명염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청명염불 수행이 아닐까.



고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7도 북방장상여등역장엄(北方長相汝等德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cm.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중 주조 성공

Advertisement for Sungjongsongsa featuring a large bell and a man working on a bell. Text includes: '이 사람이!',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국내 범종의 1만관 시대 개막', '국내 최대종인 화천 세계평화의 종(37.5ton)이 성종사 기술진에 의해 성공리에 주조되었습니다', '2009년 6월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 설치되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활용되는 세계평화의 종은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주조된 국내 최대의 종으로 한국 범종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人間文化財 第112號 梵山 元光植'.